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12월

전문가 기고

고금리 환경이 빚어내는 거대한 역풍

주요 이슈

최근 생물다양성 관련 동향과 향후과제

ESG 동향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주요 통계

고금리 환경이 빚어내는 거대한 역풍



한겨레
김경락 기자

이제 탄소 중립의 공감대는 넓게 퍼져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기후 위기의 조짐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2050 넷제로'를 선언한 파리협정 체결 당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경험의 힘은 강하다.

공감대 확산과 별개로 2050 넷제로 이행을 위한 논리적 근거는 여전히 영성하다. 특히 넷제로 전환 비용 추산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이는 2050 넷제로 목표가 아직은 '신념'과 '구호'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신념이나 구호만으로 목표 달성은 어렵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도 참석자들은 모두 넷제로를 외쳤지만 이번에 신설하려고 했던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은 성과가 미미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 입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재원은 넷제로 이행 비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언제나 돈이 문제다.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부터 2015년 파리협정까지 '목표 설정'에 18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면 설정된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별 전환 비용 추산과 마련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신념과 구호를 현실화·구체화해가는 과정은 좀 더 험난할 지도 모른다.

이런 순간에 뜻밖에 나타난 복병은 금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간 지속한 0~1%대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고금리 환경이 불현듯 찾아왔다. 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은 물론 투자 수익률에도 두루 영향을 미친다. 저탄소 사업을 시작했거나 뛰어들 준비를 하던 기업들은 투자비 조달에 더 큰 비용을 물어야 하

고 탄소 저감 기술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던 투자자들은 눈높이를 낮추거나 투자를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넷제로 이행을 위해 채찍과 함께 내밀어야 할 당근에 들어가는 재정 비용도 불어난다. 정부 보조금 없이 2050 넷제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넷제로 기술 혁신은 물론 탄소 저감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

달라진 금리 환경은 소비자들의 선호에도 영향을 준다. 저물가를 동반한 저금리 시대에는 기후 위기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조금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저탄소 상품이나 기업에 지갑을 열 여유가 있었다. 작게는 종이 빨대 음료나 포장재가 적은 상품을 사는 '착한 소비'도 하고 크게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와 내구재에도 목돈을 쓴다. 하지만 고물가와 함께 하는 고금리 시대에도 소비자들은 같은 소비 패턴을 보일까. 짠물 소비 환경에선 아직은 상대적 가격 차가 있는 상품에 선 뜻 손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넷제로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

2023년은 물론 내년 경제 환경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기업들도 허리를 바짝 졸라매며 보수적 경영을 예고한다. 코로나19 이후 반짝 나타났던 보복 소비는 끝물이고 장기 소비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환경은 '2050 넷제로' 목표 이행에 큰 장애다.

경험의 힘은 강력하지만 돈의 힘 역시 간과되어선 안 된다. 막대한 비용은 넷제로로 가는 데 가장 원천적 힘인 사회적 국제적 공감대를 흔들 수 있다. 몰려오는 거대한 역풍에 우리 인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4년의 주요 화두다.

최근 생물다양성 관련 동향과 향후과제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에서 중요한 생물다양성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는 기후변화, 대기·토양·해양오염, 폐기물 관리 등과 함께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을 실사항목으로 선정하고 있고, 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서 말하는 6대 환경목표에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전이 있다.

WEF에서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2020년 상위 5대 글로벌 리스크로, 세계 GDP의 절반이 넘는 44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자연과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자본분류에 따르면 자연도 자본이고, 따라서 자연은 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며, 이러한 자연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생물 다양성을 말하고 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한 생물 다양성

생물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1987년 UNEP에서 시작되어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다.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G7 2020 자연협약'에서 탄소중립과 함께 Nature Positive를 동시 추진하기로 하였고, 2021년 10월 UN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숲과 토지이용에 대한 글래스고 리더 선언', 2022년 12월 몬트리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으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2023년 들어와서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규제들이 발표되었는데, 2023년 4월 '반삼림 파괴법'과 2023년 7월 '자연복원법'이 EU 의회를 통과하였고 2030년까지 EU내 육지와 바다 최소 20%

복원, 농지 10% 초지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서는 지난 9월 19일 '자연 관련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최종 권고안을 공개하였다.

TNFD '자연관련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최종 권고안

- 1) 프레임의 구성과 용어는 TCFD의 기준을 차용하였다.
 -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4가지 필러(핵심주제)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 및 영향관리, 지표 및 목표를 차용하고 그 아래 14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TCFD가 기후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TNFD는 자연자본에 중점을 두었다.
 - 자연자본은 생물, 물·토양·공기, 광물 등 3가지를 의미한다.
- 3) 자연관련 리스크와 기후 리스크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 예를 들어 산불은 온난화로 인해 발화점이 높아진 탓에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기후 리스크이지만 동시에 토양침식이나 물 수급량과도 연관된 자연 리스크이다.
- 4) 자연관련 리스크를 회계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 기존 금융공시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ISSB, GRI기준을 따르고 있다.
- 5) 기후공시와 달리 자연공시의 경우 명확하게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 육지와 해양환경까지 다양한 기업 활동에 따라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연자본의 리스크가 기후 리스크보다 다면적이고 경제적 영향과 재무적 불안정성이 더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TNFD 공시 권고 4가지 핵심 주제 & 14가지 세부 항목

지배구조	전략	위험 및 영향 관리	지표 및 목표
자연 자본 의존도, 자연 자본에 의한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지배구조 정보	자연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제·잠재적 영향	자연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지표와 목표
A.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의 감독	A.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식별한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 설명	A. (i) 기업이 직접 운영 부문의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	A. 전략 및 위험 관리 절차에 따라 자연 자본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B.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경영진의 역할	B.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 모델, 가치 사슬, 전략 및 재무 계획, 그리고 전환 계획이나 분석에 미치는 영향	A. (ii) 기업의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의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	B. 자연 자본 의존도와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C.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및 대응시, 원주민, 지역사회 및 영향권에 있는 기타 이해 관계자 대상 인권 정책과 활동, 이와 관련된 기업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독	C.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 전략의 탄력성	B.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D.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자산 및 사업 활동의 위치를 공개 하고, (가능한 경우) 우선 순위 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위치 공개	C. 자연 자본 위험을 식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절차에 통합되는 방법	

■ : TCFD 유사 지표
 □ : TNFD 특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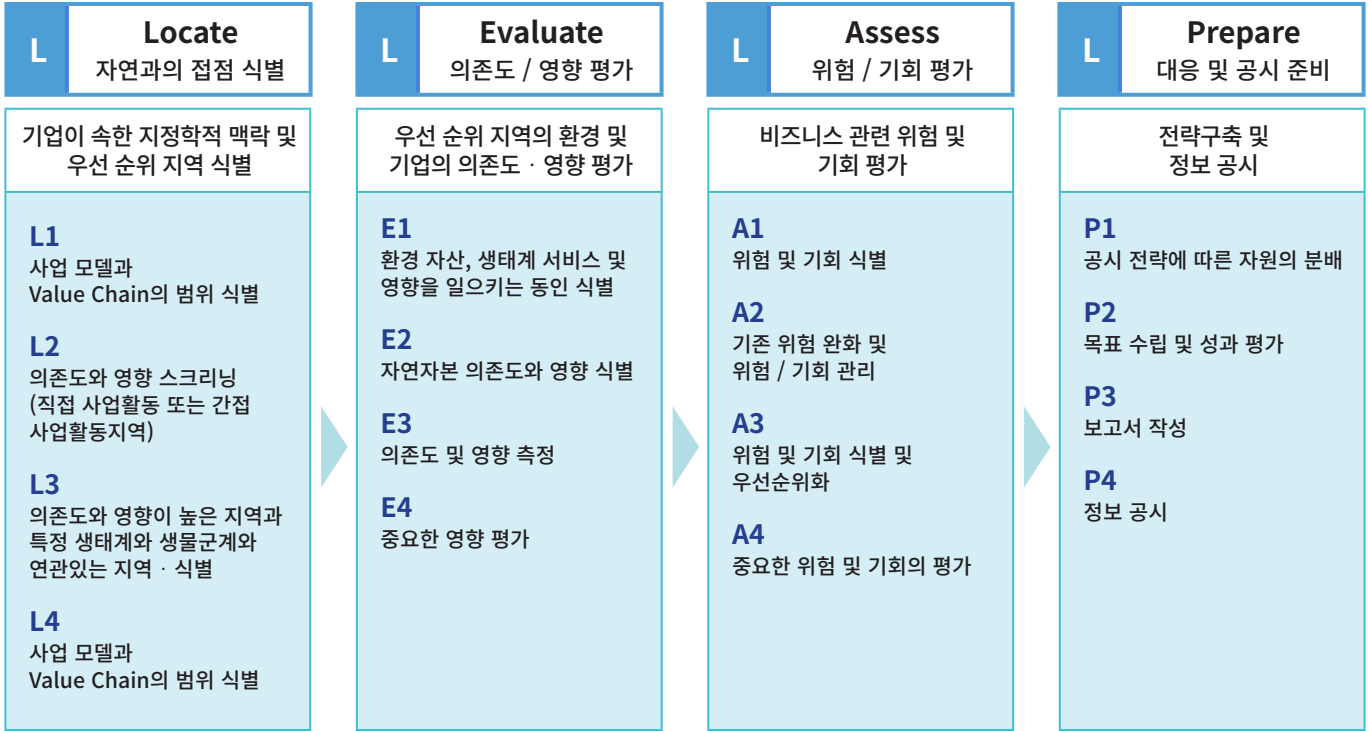
*TNFD는 3가지 특화지표가 추가됨.

TNFD의 기업 내부 평가 방법 ‘LEAP 접근법’

- LEAP 접근법이란 지역식별(Locate), 의존도 및 영향평가(Evaluate), 위험 및 기회측정(Assess), 공시 준비(Prepare)를 의미합니다.

- TNFD는 기업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해당지역에서 기업이 자연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고 그 영향은 어떠한지 평가해서 자연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를 측정 후 이에 대한 대응 및 공시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LEAP 접근법'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 이거나 Value chain에 속하는 활동 지역

2024년 기후,자연변화 관련 공시 강화가 예상됩니다.

- CDP(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는 TNFD 공시 플랫폼을 TCFD 와 연동하여, 2024년부터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GSK(글로벌제약사)도 2026년부터 첫번째 TNFD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GRI는 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표준 초안을 발표하였고, 2024년 2월 29일까지 설문조사 과정을 거친 후 2024년 4분기에 최종 표준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렇게 본격화 되어 나가는 기후, 자연 변화 공시 흐름속에서 일단 TNFD의 권고안을 철저히 이해 및 분석하며 기업의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관련 분야의 동향에 주목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자료

- Getting started with adoption of the TNFD recommendations Version 1.0 September 2023
- ESG Newsflash TNFD Key Takeaways 삼일 ESG Platform. September 2023
- The TNFD Nature-related Risk and Opportunity Management and Disclosure Framework Beta v0.4-Summary
- IMPACT ON 2023.11.23 GRI,기후변화와 에너지 표준 초안 발표
- 뉴스:트리 2023.09.19 생태계 파괴가 곧 재무리스크
- IMPACT ON 2021.06.08 <zoom> TCFD 다음은 TNFD,자연자본도 관리해야
- 조세일보 2023.10.05 기후변화 다음은 '자연 자본 관리'
- IMPACT ON 2023.09.20 TNFD 최종 권고안 발표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지속가능경영원

국내 기업 22곳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투자 지수를 측정하는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DJSI)에 편입됐습니다. 또한, GRI는 새로운 기후변화 표준 초안을 공개하며 온실가스 제거 및 탄소배출권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 중 비교적 관심이 미흡했던 S(사회)영역의 가치 측정 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서는 기후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출범했으며,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에 대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외 ESG 뉴스

SEC 관계자들, 기후공시 '스코프3 완화' 가능성 시사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2>
ESG경제 | 2023.11.22.

GRI, 기후변화와 에너지 표준 초안 발표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71>
임팩트온 | 2023.11.23.

ESG 중 '사회' 중요성 높아진다... SEC 투자 자문위원회, 인적자본공시규칙 강화 권고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63>
임팩트온 | 2023.11.23.

해외 '그린워싱' 소송 빚발... 국내도 '잠재적 리스크' 급부상

<https://www.ajunews.com/view/20231123163608386>
아주경제 | 2023.11.27.

COP28, 합의 도달 후 폐막... 화석연료 '순차 폐기' 대신 '전환' 그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3_0002557348&cID=10101&pID=10100
뉴시스 | 2023.12.13.

국내 ESG 뉴스

'탄소중립도시' 10곳 내년 9월까지 선정... 84개 지자체 신청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9>
ESG경제 | 2023.11.06.

기업 온실가스 배출 목표 한눈에 보는 '넷제로 코리아' 공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7500045>
서울신문 | 2023.11.27.

국내 ESG 금융 1000조 돌파... 국민연금 위탁자산 대거 포함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11290506b>
매거진한경 | 2023.11.29.

"중소벤처기업도 탄소중립"... 금융권 민·관 협력 협약식

https://www.newsis.com/view/?id=NI SX20231205_0002545980
뉴시스 | 2023.12.05.

ESG 상위 10% '2023 DJSI 월드지수'에 국내기업 22곳 편입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12110004>
뉴스트리 | 2023.12.11.

ESG 통계 지표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개)

	'23.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녹색채권	227	231	249	247	249	257	268	276
사회적채권	1,164	1,201	1,246	1,281	1,314	1,371	1,394	1,440
지속가능채권	297	290	297	292	287	294	289	280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천억 원)

	'23.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녹색채권	215	217	243	241	241	249	251	254
사회적채권	1,666	1,713	1,768	1,803	1,849	1,898	1,928	1,971
지속가능채권	211	214	217	216	209	212	207	201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23.11.30)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23.11.30)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1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3.11) *CF100 참여 기업(기관) 수: 141개 ('23.10)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1
국내	-	-	-	6	14	27	35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2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2월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3월 |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4월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5월 |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6월 |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7월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정책

8월 | 지속가능 정보공시의무화와 제3자 인증의 신뢰성

9월 | TCFD 개요 및 적용 현황

10월 | K-Taxonomy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1월 | ESG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12월 | 생물다양성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권우혁 연구원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E. kyw1208@korcham.net